



## 기후협약 대응, 서울시 강남구 적극 동참! ESCO사업 확대 · 추진 예정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 8월 16일,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구는 2010년까지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 10%를 감축목표로 하는데 이는 온실가스 29만 톤에 해당하는 수치다. 강남구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과 함께 'ESCO사업'을 확대 · 추진할 계획이다. 강남구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송필석 팀장을 만나 강남구의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에 대해 들어 봤다.

오혜은 기자(hi9187@hanmail.net)

“강남구는 지난 4월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구청 홈페이지에 구축, 에너지 정보와 에너지 가계부를 제공 중입니다. 그 결과 지난 5개월여 동안 가정·공공기관 등 1,429곳이 프로젝트에 참여해 3000여 톤의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강남구의 이번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 초안부터 추진 과정에 이르기까지 일을 전담하고 있는 지역경제과 에너지팀 송필석 팀장의 말이다.

강남구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기본조례안’을 올해 안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다.

## 2010년까지 에너지 소비 10% 감축 민간기업, ESCO사업 세제 혜택

강남구는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에너지기본법에 따른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를 구축한다. 구는 이를 위해 에너지절약시책 시행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를 표명하기 위해 에너지조례 제정도 추진한다.

송 팀장은 “이번 에너지 조례에는 에너지절약, 교통, 자동차 오염개선, 자원 및 폐기물, 자연환경 보전 분야 등 지구온난화 예방을 위한 다각적인 대응 전략이 포함돼 있다”며 “구는 이번 에너지 조례 제정을 위해 지난해 10월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 약 84%의 찬성 의견을 얻어냈다”고 말했다.

이후 올해 초 에너지절약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 관련 기관의 의견 수렴과 검토를 거쳐 올해 7월 에너지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8월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의결을 얻었다.

이 에너지 조례안에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이념과 각 주체별 책무에 관한 사항, 에너지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에너지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에너지 활동에 대한 지원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구는 이번 에너지 조례에 따라 2010년까지 2006년 대비 에너지 10% 절약, 온실가스 29만 톤 감축을 목표로

하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에너지(전력) 이용의 3.2%에 불과한 공공기관과 에너지다소비업체를 대상으로 추진하던 기존 에너지시책을 에너지 이용의 96.2%를 차지하는 상업, 가정용 부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ESCO사업 추진과 함께 전자 에너지절약 실천 프로젝트 운영이 담겨있다.

먼저 에너지절약의 핵심 사업으로 민간기업 ESCO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ESCO사업은 연면적 1만㎡ 이상 건물 256개소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기존 고효율조명기기 교체, 소형열병합발전 설치사업 뿐만 아니라 신재생에너지설치사업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구는 현재 주택 및 공공기관 등 1,429개소가 프로젝트에 참여해 3,031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한 실적 있는 ‘e-에너지절약 실천 프로젝트’를 구 홈페이지에 구축했다. 이에 따라 주민과 관내기관, 사업장이 지난해 대비 에너지 사용량을 작성하면 에너지 절약량 및 순위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다.

송 팀장은 “이러한 구의 ESCO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ESCO협회와 회원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 서로 협력해 ESCO사업 활성화에 힘을 모으자”고 말했다.

강남구는 이미 올 상반기 ‘우수 에너지 절약기관’으로 개포 1·2차 우성아파트와 함께 강남우체국, KT&G 서울사무소, 청담중학교, 수서중학교, 언북중학교 등 총 6곳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관에는 에너지절약 우수기관 지정패와 에너지절약실천 운영 자금이 주어질 예정이다.

강남구는 올해 ‘강남 에너지절약 시민실천단’의 발대식을 갖고 대내외적으로 ‘강남구 기후변화 대응선언’을 통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